

## 육계 계약사육 농가 소득 및 계약사육 문제점

# 공인된 육계사육 계약서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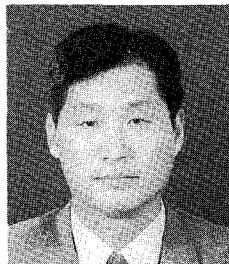
### 1. 육계 사육 농가의 소득 수준

육계 계약 사육 농가의 소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산출하기란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것의 명확한 답을 구하려면 여러 가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고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현재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가장 흔한 방법을 사용하여 육계 계약 사육 농가의 소득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약 사육 방법으로는 수수료 지급 방식과 계약 구매 방식, 시세 계약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방법인 수수료 지급 방식에 대해서만 언급해보기로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계약 사육 농가의 평균 사육 수수는 약 3만수 정도로 알고 있다. 3만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육비를 수당 약 240 원으로 환산할 때 약 700만원 정도이며, 여기



이 준 동  
(사철농장 대표/본회 청주육계분회장)

에서 경상 경비를 공제하면 600여 만원 정도이다. 연 5회전 할 경우 1회전 정도는 질병이나 병아리의 불량, 천재지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육 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연 수입은 약 2,000여만 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이 정도면 중상위 정도의 사육 성적이라고 생각한다.

### 2. 현재 계약서는 통고서나 마찬가지

계약이란 쌍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약속을 서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인데, 지금의 계열화 회사들의 사육 계약서는 사실상 일방적인 통고서 역할을 할 뿐이다.

농가에서 잘못한 일은 농가에서 다 책임을 지는데 회사에서 잘못한 일은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면, 병아리 불량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폐사수 만큼만 병아리 값으로 보상조치를

해주는 것 뿐이  
다.

불량 병아리  
때문에 사육 성  
적이 나빠 사육  
비가 평소보다  
훨씬 적게 지급  
되었을 때 이 손  
해를 농가가 감  
수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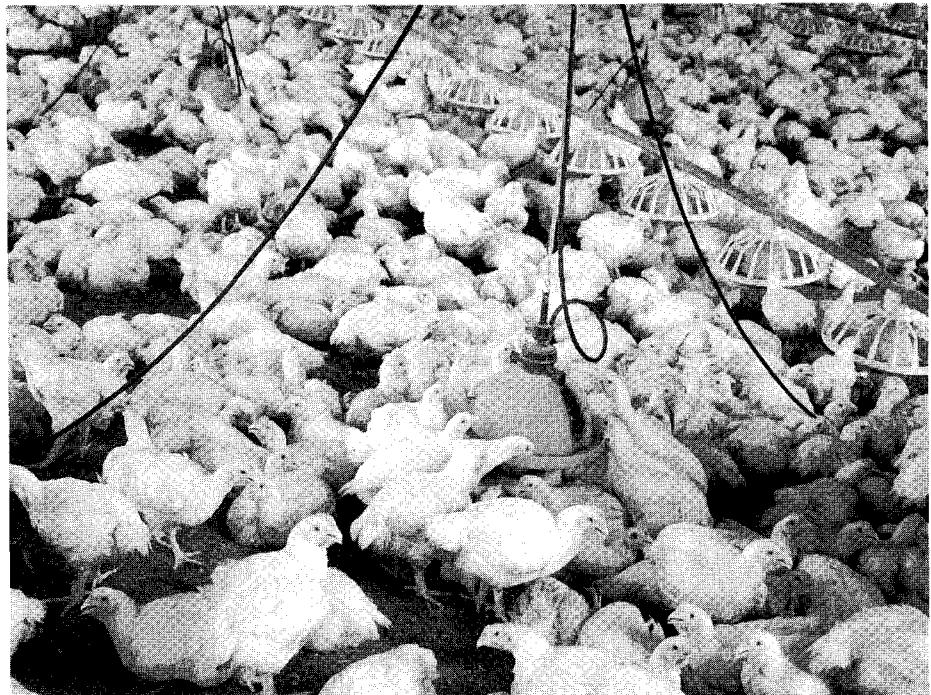
또 대개의 회  
사가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  
는데, 계약 기간  
안에 농가가 잘못을 하면 철저하게 계약에  
따라 이행하고자 하면서 회사에서는 계약에  
따라 이행하지 않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사육 수수료를 줄일때나 수수료 지급 방법을  
바꿀 때 등 회사에 유리한 조건이 주어진다  
면 아무런 합의도 없이 계약서를 바꾸고 있  
다. 심할 경우에는 1년에 몇번씩 바꾸는 회사  
도 있다.

### 3. 공인 계약서의 필요성

계약서는 쌍방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자동차 매매 계약서  
처럼 정부가 표준화한 계약서를 정부기관 주  
도하에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계약서가 만들어져도 계약



서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생겨나는 제반적  
인 문제에 대해 중재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기구가 만들어져 계약서외의 상관례에 의한  
분쟁은 그 조정 기구에서 중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4. 사육수수료에서 원가 절감하는 행위 는 근절되어야…

원가 상승 요인을 사육 수수료를 줄여서  
맞춰야 하는가? 회사에서 원가 상승 요인이  
생기면 농가에서도 공과금 인상, 수업료 인상  
등 많은 인상요인이 생기는데도 사육 수수료  
는 해마다 줄이고 있다.

회사에서는 농가들이 사육비를 줄이거나  
연료비를 줄여도 아무말 하지 않는다고 계약  
서를 바꿔 지급 수수료를 줄이거나 연료비를

줄이고 있는데, 병아리 생산원가를 줄이든지 구조조정을 하든지 해서 경영에서의 원가 절감을 해야지, 농가 사육수수료를 줄여서 원가 절감을 하는 행위는 없어야 겠다.

농가들은 해마다 사육 수수료가 깎여도 개인이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어 그대로 손해를 보고 있다.

그것에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체제를 운영하지 않는 회사가 있고, 시정을 요구해도 전혀 무반응인 회사가 있기 때문이다.

#### 4. 양계협회는 생산자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양계 협회는 매월 회의때 모여서 시세 정보나 분석으로 끝나는 회의가 아닌, 계약 사육 농가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어떤 육계사육 농가라도 계약 사육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계약 사육을 하지 않더라도 그 분야의 정보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계약 사육 농가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양계 협회는 계약 사육 농가를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양계협회는 계열화 회사들의 사육비 지급에 관한 정보나 결재 방법, 평균 성적이나 종계 관리, 회사의 재력 등 양계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수집해서 육계 분과위원회나 월간양계를 통해 제공할 수 있어야 협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보다 많

은 육계사육 농가의 참여와 지지를 받아 진일보한 협회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5. 사육 농가는 본분을 다해야…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많다. 양계협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의 목소리가 담긴 곳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많은 농가들은 양계협회에 참여해 중지를 모아 한 목소리를 내고, 억울한 일이 있거나 부당한 일이 발생하면 함께 헤쳐나가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할 줄 아는 당당한 모습으로 권리를 주장할 줄 알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늘 소, 돼지와 차등을 한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다.

단합된 힘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구제역이나 돈콜레라에 대한 절반의 관심만으로도 육계 사육 농가의 당면과제인 뉴캐슬병을 퇴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육 문제도 자신의 관리 소홀로 잘못된 것을 병아리나 사료 탓으로 돌리는 부끄러운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참다운 모습을 찾도록 노력해야하고, 사육 문제에 관련된 질문에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주종의 관계처럼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올바른 계약 사육의 이정표가 2002년도에는 꼭 만들어져 올바른 계약 사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계**